

EU, GM 식품에 대한 소비자반응

EU가 유럽 전지역에서 6년간 유전자변형(GM) 식품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던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GM 식품의 수입금지의 근거로 인용되던 GM 농산물에 대한 EU 소비자들의 반감이 생각만큼 실제 대단한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EU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1998년부터 새로운 GM 작물의 개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생명공학자들은 그러한 우려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의 이러한 조치가 불법무역장벽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미국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에 EU는 신속하게 금지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EU는 GM 작물이 유럽내에서 재배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선반에 GM 식품이 진열되는 경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EU가 강력하게 GM 식품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소비자들의 GM 식품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EU는 소비자들에게 GM 제품을 먹어도 된다고 인식시키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과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최근 영국 소비자들의 GM 제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전히 GM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으나 다른 요인들, 특히 가격이 작용할 경우 이러한 우려가 급속히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일리노이즈대학(Southern Illinois University)의 Wanki Moon과 Siva Balasubramanian은 AgBioForum이라는 저널에 유럽의 식품제조업자들이 GM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 때문에 유전자변형 성분투입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금지조치가 결국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값싼 GM 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보더라도 GM 작물을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막대한 물량, 비GM 생산자들이 분리와 라벨링 작업과 같은 부가적인 가격상승 요인이 있고, GM과 비GM 생산물의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GM 성분이 관행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GM 성분이 첨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침용 시리얼을 대상으로 그러한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2,0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영국 소비자들의 주류(71%)는 비GM 시리얼 구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2%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였다. 응답자의 나머지 23%는 아무런 선호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GM 곡물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불한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소비자들은 좀더 덜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비GM 제품만을 사겠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이 전체의 71%에서 56%로 급감했고, ‘모르겠다’에 응답한 응답자들은 4%에서 22%로 증가했다.

다시말하면, 비GM 식품에 대한 추가비용이 소비자들이 저가의 GM 식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소비자들의 GM, 비GM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뜻밖의 연구결과가 아니다. 영국의 소비자들이 비GM 제품을 사려는 의지를 보이는가에 대한 더 많은 질문들은 추가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영국의 응답자 비율은 추가비용의 액수 만큼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세트당 5센트 주변으로 설정되면, 응답자의 13.9%가 비GM 식품을 사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추가비용이 1.7 유로이상 차이가 있다면 응답자의 55.9%가 비GM 식품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자들은 영국에서 GM 식품을 받아들이는 소비자 집단과 가격에 의해 동기화되는 소비자집단을 정의하는 데이터를 활용했다. 첫 번째 그룹에서 만약 비GM 식품과 GM 식품의 가격이 같다면 GM 곡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13.3%이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GM 곡물이 관행 식품보다 더 싸다면 GM 식품을 사겠다는 비율이 전체의 13.6%였다.

GM 식품을 구입하려는 27% 미만의 응답자들은 많지 않으나, 식품 가공업자들은 기회를 엿보는데 고취되어 있는 것 같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EU 전체에 GM 식품에 대한 반대는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높다.

그러나 이러한 GM 식품의 잠재시장은 가격에 의존하고 있으며, GM 식품이 먹기에 안전하다는 것은 전체의 절반이라고 소비자를 설득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 경영자들은 가격하락을 공동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국 소비자들의 지갑에 어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GM 제품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출처: 유기농산물거래서비스
(주대진 jjudj76@empal.com 018-394-2790 지역아카데미)